

2023년 4월 29-30일 주말예배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 7. 다시, 성숙한 교회로

## 다시, 성숙한 교회로

### 사도행전 2장 42-47절

-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몇 주 전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매력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읽었던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보면서 공감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삶을 방식을 바꾸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이것을 고민할 때, 가장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성숙한 교회의 방해 요소들...

#### 1)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은 '전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전통이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혹은 습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나 자신이 속한 단체에 아주 익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으로 인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정신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전통이란 자신에게 길들여진 생각의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자신들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해야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행동이란 다분히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행동을 이해하는 양식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참 무섭게 질책을 받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배웠고, 지켰지만, 그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인데 반하여, 이들은 자신이 그대로 해왔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는 인간들의 쉼을 위하여 안식일 전날에 여분의 만나를 거두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남은 만나가 썩었지만 안식일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쉼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신 안식일이,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이라는 전통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목회자와 성가대원들의 가운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예배 시 사용하는 찬양의 스타일에 대하여도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제가 [열린 예배? 현대예배!] 라는 책을 쓰고 한국교회 논쟁의 핵심에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논점은, 우리가 ‘교회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적’이라는 것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금의 찬송과 음악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런 전통적인 찬송가나 음악이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잘못된 예배나 교회인 것처럼 비난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찬송가라고 부르는 것들도 그 당시에는 전통적이지 않다고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문화와 전통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왜곡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런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전통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전통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 2)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 ‘주 되심’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12명의 제자를 두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고 “사도”라 불림을 받으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에 주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에서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인 ‘Promise Keepers’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단일 대회로는 최대의 인파인 140만의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많은 회중들이 워싱턴에 모였을 때, 사회자가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서 자신의 교파를 이야기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 . 그러나 그 소리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잡함이었습니다.

그 때 다시 사회자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 때 너무나 또렷하게 한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Jesus Christ!”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혈액형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O형이 좋다고 합니다. AB형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O형 밖에 없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J'형 이지요.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만이 수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현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Yes Man"들이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발음을 한 번 잘 해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면, "예수 맨"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담임목사를 보고 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오류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무척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그게 뭐니까?"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굳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다가와서 밝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로비에 서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들이 저를 착각 속에 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혹, 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은 저에게 "목사님의 설교는 신선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더욱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곧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사람 때문에 쉽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담임목사의 고집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Willow Creek 교회의 Bill Hybels 목사가 말한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제외하고는 교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하던 빌 하이벨스 목사도 지금은 이탈로 인해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며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없는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담임목사가 없어도 아무 문제없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초대교회에도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병폐 중에 하나가 분쟁과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세우는 문제로 같은 시간에 위층과 아래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는 늘 우리의 뒷전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결코 타협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데, 결국 자신의 뜻이 관철 될 때까지 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물’, ‘내 뜻’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 전 변화산 기도회 기간 중에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며 집회를 인도하던 저에게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못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잠을 못자요?”

“응, 내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걱정이 되어서. . .”

제 아내가 말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해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인데. . .”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제가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늘 ‘내가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나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내가 한다고, 어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유아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결정을 하고,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3)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교회의 재정이 어떠한가에 의해 교회의 성격이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면, 교인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를 부르셨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은 ‘얼마나 절약했나?’가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정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재정이 우선 되는가?

저는 지금도 제가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한 것이 있는데, 돈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헌금 소리를 하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꼭 교회를 떠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전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명해 졌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들을 때, 겹을 먹고 떠나갈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인 사람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 하늘나라의 정예군대로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송구영신 헌금봉투의 기도제목을 보고 여기저기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제목의 내용만 알았지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제목에 담긴 그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죄책감이 들어요.”

사실은 그동안 십일조도 못하고 헌금 생활을 못해서 10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왔는데, 다 못하고 반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젊은 여자 분이 50만원 감사헌금을 했기에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그날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했던 남자친구가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마음이 꺼림칙했던 모양입니다.

그 분의 기도 제목에는 올 한해 십일조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면 모든 직원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체험하던 때, 저는 군에 있으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는 아주 적은 월급 중에서 얼마를 떼어 미래를 준비하며 적금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저금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늘 그 적금을 떼어놓고 생활을 하니 목사로서 제가 사용해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가 굳게 결심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 보다는, 먼저 필요한 일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용감한 목회자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제 삶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 저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만 나오면 미국에 갈 상황이라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웠던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여유가 생기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교회 중직들이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이 불편하니 사례비를 받으세요.”

그 당시에 저는 아버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둘이나 둔 처지에 경제적인 독립이 왜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때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한대로 해. 목사는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돈이 없을 때는 유혹도 받지 않는데, 돈이 있으니 마음도 흔들리고 유혹도 받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때 돈이 저에게는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돈이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 마지막 인사를 하던 주일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례금을 교회에서 주었습니다. 제가 그냥 썼으면 없어졌을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달러로 바꿔서 말이죠.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 교인들은 유학을 떠나는 저에게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경험했던 순간을 말합니다.

**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떨거나, 돈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 말입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을 풍요하게 만들거나 빈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남을 돕는 사람을 보면 물론 부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흔히 않게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역시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재정을 투자한 교회이지, 성장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을 해도 늘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갑니다.

#### 4)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이전에 여러 번 언급했던 ‘전통적인 교회’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에 너무나 바쁘게 쫓기다보니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교회는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만한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 듣는 것,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때 교회에서 유행하던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이제는 성경 쓰기로 옮겨갔습니다. 성도들이 일생에 한번 성경을 읽거나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는 것은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은 성경은 읽거나 쓴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굳은 결심을 하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쓰기를 마치고 펜을 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 썼으니 성경 좀 읽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중심적인 일의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 적용해 봅시다.



열심히 성경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공부가 우리의 지식만을 키우고 있다면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의 지식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양육을 받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공부가 그저 프로그램으로 전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르띠즈牧사는 아르헨티나에서 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설교가이다. 그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왔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었다. 당시 오르띠즈 목사는 “사랑”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준비한 설교를 하지 말도록 마음속에서 권면하고 있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청중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한 설교를 하지 말라니 말이다. 그러나 할 수없이 오르띠즈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 “오늘의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의자에 앉았다. 얼마를 사람들이 멍하게 앉아있자 다시 강단에 올라가 말했다. “오늘의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성가대나 특송자가 약속되어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기다리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르띠즈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올라가 말했다. “오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제야 청중 중에 하나가 일어나 뒤를 돌아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자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예배시간에 많은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서도 오르띠즈 목사는 설교를 하지 않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몇 주를 지나고 나서, 강단에 섰을 때의 일이다. 오르띠즈 목사는 그 때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오르띠즈 목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었던 것은 그렇게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고 듣지만, 실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라는 질문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29).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그리고 삶이 변화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은 늘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들은 말씀을 행하기도 전에 또 말씀을 듣는 다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결단코 말씀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 교회의 프로그램만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교회는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의 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흠어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들의 전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영감을 받고,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이 전에 찾아와야 합니다.

저는 대학시절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문무대에 입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사격훈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실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총의 가늠자를 조정합니다. 표적을 향해 조준하고 격발을 하면, 표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표적지에 볼펜으로 표시를 한 다음 확인을 합니다. 보통 표적 내에 정삼각형의 그림이 그려지면 이상적으로 사격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내 표적은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웠고 사격을 위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군종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 내가 영천의 3사관학교에 입소했을 때에도 사격에 관한 한 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격교관이 “목사님은 병과를 보병으로 바꾸는 것이 어때요?”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무대에서 훈련을 받던 시절, 영점 조준을 끝내고 사격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내 표적에는 한 발도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맞지 않았을까? 실망도 되고 고민이 되는 찰나에 내 옆에서 사격을 한 친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9발을 쏘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맞았지. . .”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중앙에 가서 총알이 맞은 흔적이 있었지만 내가 쏘았다고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잘 쏘느냐가 아니라, 내 목표에 맞았느냐의 문제이지요.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혹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교인들이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는 재정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역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들이 성숙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좀 더 나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동일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서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바쁘게 살았구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